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적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68호

서기 2002년 5월 8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 삼천대천세계 모든 진리가 불교

우리 모두가 한 발 떼어놓을 때에 한 발을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금을 쥐었다면 금을 좋은 데다가 깊숙하게 감춰 놓지만 걸레를 찼다면 걸레를 어떻게 놓으십니까? 떨어지고 그냥 아무 데나 떨어 놓죠? 그렇게 걸레 찌서 밀어 놓듯 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가고 오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어서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올 때도 짊어지고 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줄을 몰라요. 얽매어서 말입니다. 이사가도 이거는 낱자를 봐야 하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머니, 구랑신이 들어서 집을 못 짓는다 또는 혼인을 해도 낱자를 봐야 하느니,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없거나 문을 찾아다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문도 벽도 은산철벽도 지구도 다 문이 없는 겁니다. 땅 속도 물 속도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건 통과입니다. 그냥, 그냥, 그냥 통과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왜 얽매입니까? 왜 자기의 노예가 됩니까? 왜 항상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도 복잡하고 죽었는데 종교마저도 얽매어서 안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사립이라는 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전에 그랬죠. '구랑신이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 아니 언젠가는 이 몸통이를 다 버리는데, 쓰다듬고 만지고 그러면 것도 다들 버리는데, 누구는 안 버리나?' 그런 놈의 거, 무엇이 그렇게 애똥해서, 죽을까봐 겁나서 집을 못 지어'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여지껏, 하하하.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한테 말려서 항상 얽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도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 겁니까? 어디 가서 보니까 물귀신이 꼭 자기를 해친다고 해서 물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에는 가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그 물귀신이 정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에요.'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기에 때문에 당신의 몸통이가 물귀신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 어디에 초청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오신다고 계단을 그냥 물로 두어서 청소할 줄 해 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쳤단 말입니다. 그래 허리를 다쳐서 그 해 일년을 일어서질 못했다는군요. 그러더니 그 후에 또 와서 정말 물귀신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됐기 때문에 물귀신한테 당신 몸이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 아니었다면 그 몸통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에 따라서 물귀신이 되느냐, 물귀신이 아니 되느냐. 일체 천차만별에 대한 것을 이 마음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깨닫고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를 볼 수 있다면 바로 나도 볼 수 있느니라. 너를 볼 수 있다면 자생중생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 화(化)하게 다스릴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야 몸통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자기가 마음쓰는 대로 알아 들어서 행하죠. 작용을 해주고 행하고, 털구역을 통해서 듣고하면서 다 작용을 하죠. 그렇게 돼야 맨 나중에 자기가 견성을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절단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견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천차만별의 병종 둘러치듯

18면으로 계속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여러 대덕 스님네들도 같이 한자리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주셨다고 하지만 마디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것인가?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길은 마음 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더욱 뜻 깊은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부처님 불축일은 찰나 찰나가 불축일이며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계시어 무시무종(無始無終) 일승공법(一乘空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마음으로써 일체 만물만생(一切萬物萬生) 어느 것 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원할 때에는 한 찰나에 응신(應身)으로서 관세음이 돼 주시고, 또는 경이 짧다 하고 구원을 청할 때는 항상 철성 부처가 돼 주시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간다 하고 소원을 하면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에서는 지신이 돼 주시고, 독성이 돼 주시고, 산신이 돼 주시고, 아프면 바로 약사가 돼 주시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응신이 돼서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느 자리마다 골짜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은 삼천 년 전이 바로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이요,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기에 어떤 것이 될 때에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여러분한테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를 해야 바로 내가 제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자생중생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에는 모든 생명, 의식,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 즉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치고 자기 영혼과 더불어 업식이 그림자처럼 영혼에 떨어져서 바로 중생이 돼서 이 세상에 생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입력된 것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또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현재 스님네들도 그러시구요.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아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은 바깥으로 얽매이느니라. 길을 가다 걸어지면 그 땅을 짓고 일어나야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거리단대면 일어나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물질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한 것만큼 즉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나쁜 일을 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풍 심은 데 풍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듯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가 꼭 먼 데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과겁니다.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과겁니다. 일초 전도 과겁니다. 과거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되 거기가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몰락 녹아지느니라, 없애지느니라. 그러니 본래 공(空)해서 불어 있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관습에 의해서 불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 거르는 수행을 해야만 되겠기에 부처

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라구요. 좋은 일, 착한 일, 또는 선행을 했을 때 안팎에서, 안에서 좋은 일 좋은 생각,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일 좋은 행동,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약한 마음이 생길 때는 '약한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선한 마음을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가 되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모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경계가 닦아졌을 때 그것을 다파 못한다면

살아가는데 일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항상 '내 탓'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계향



그림 · 최주현

감사하는 마음이 깊은 내면세계 머물면 그 마음이 바로 정향

나 내가 새 짝이 됐구나. 그러니 그 짝 속에 열매도 있고, 바로 그 짝 속에 씨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속에서 찾아야지, 내가 낳기 이전에서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는가? 하고 뛰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라는 존재는 모두가 시지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시지일 뿐입니다. 여러식은 사람을 부처를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합니다. 마음을 구해야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으로서의 나를 뛰어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이 몸통이 속에 수십 억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의식들

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들은 바로 중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중생의 병이 나야 내 병이 낫겠노라.' 고 유마힐거사가 말했듯이, 부처님께서도 '네 자생중생을 먼저 제도해야 네가 해탈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자생중생을 제도 하나? 이 자생중생들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 매달려 살면서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이 몸통이 속에 중생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좋고 나쁜 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

는 행하게 되니까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너무도 자기 자성(自性)을 무시하고 삽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씨를 찾으려고 그런다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전에는 화두(話頭)를 들어서 많이 깨우침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바깥에 돌아가지고 빨리 돌아가고, 너무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붙잡고 '이거 뭐고?' 하기 이전에 바로 과거의 씨를 볼 볼에 심었

을 먹는 대로 강도질을 할려고 한다면은 강도질하는 대로 그냥 좇아주고, 착한 일을 할려고 하면 착한 일로 좇아줍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가는 데에 손이 쫓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 어찌 마음으로써 다스리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이자 법신이니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부처님의 법을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가르치는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셋째는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된다 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생기는 것이 상대성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깐 부딪히고 있고 상대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우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의리와 도의를 절대로 허탈히 생각 안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써서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이음해서 계향(戒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면에 자기 자성신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선이 중심이 되고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인공(主人)이라고, 각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의적으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니 나쁘게 돌아가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다치고 이러한 것은 '나쁘게 나오는 것도 너니까 좋게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가 낫을 때 좋게 돌려지죠. 또 안에서 좋은 마음이 생기고 바깥에서도 좋은 행을 하고 이럴 땐 감사하게 놓고, 그럴 때 그 깊은 내면세계를 떠나지 않고 굴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음해서 정향(定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을 피워놓고 초를 켜놓고 아무리 발아찔던들 공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이끌어가고 진짜로 나를 이익되게 하는, 그리고 업보를 타파하고 과거의 모든 번뇌망상 생사윤회를 타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체제불과 일체중생은 돌이 아니어서 모두가 마음으로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말로 전달하고, 이게 교(敎)입니다. 풀 한 포기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돌아가는 그 진리를 불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

다 문수!' 하고 주적으로 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통이가 팔죽 술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팔죽 술에서 팔죽 방울이 나오는 거지, 편 데서 오고 뱀어가고 이러한 게 아닙니다. 망상도 또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속지 말고 그냥 내려, 미리' 이것도 팔죽 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너로구나!' 하고 탁 놀러 놓고 그러라구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몸통이 속에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가 되놓는다면 그게 마음으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번뇌와 망상, 생사 윤회 모든 거를 타파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현 쇠든지 새 쇠든지 다 넣으면 녹아져요. 되놓는 그 작업만 한다면 녹아서 저절로 생선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거주장한

“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면·물질세계 관하고 체험하며 돌아가는 게 계향 ”

생각을 마시고 진실히 믿고,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구정물이 나올 땐 맑은 물로 바꿔 써라 이런 겁니다.

모두 이런 것을 놓아 가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해향(慧香)입니다. 이음해서 해향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셔야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이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음해서 해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두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하는 도리죠. 세 번도 그 자리에다 놓고 보임을 해야 되겠지요? 그건 왜냐? 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래 없다면 찾는 것이지만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부(父)와 자(子)가 상봉하게 되면, 하는 소립니다.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견성을 했다.' 한다면 다시 미쳐서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 째는 돌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해향' 했듯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양면을 둘로 보지 않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해향입니다.

계향·정향·혜향을 올바르게 한다면 해탈향(解脱香)도 바로 행하게 되죠. 이것

## 자생중생 제도해야 해탈할 수 있어

안에 있는 것이지 불교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불교를 마구니 소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짓는 대로 바로 악업이 정해지는 거니까 자기가 자동적인 컴퓨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해놓는 입력이라 슬슬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 하겠는데 이 마음 속에 말입니다. 마음으로 왜 다스리라고 하느냐?

옛날에 어느 수좌 스님이 동짓날 팔죽을 쑤다가, 그거 다 아실 겁니다. 팔죽방울이 끓어서 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

도 이음해서 여러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인 것을 푸는 것이며 또는 여여하게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그 이름을 속 빼놓고 진실로써 그대로 작업하신다면 바로 해탈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향을 그렇게 했으면, 이게 마음의 향이지 물질적인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탈지견향(解脱知見香)도 이름입니다.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서 말입니다. 걸림없이 구족한 것이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이음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